

특별기획



7월 수산물 민어·소라 선정

부안군은 예부터 사대부의 여류보양식으로 부레는 한약재로 쓰인 만큼 영양 덩어리인 민어와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고 시력보호에 효과적인 소라를 7월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발표했다.

민어는 단백질과 EPA, DHA 등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한방에서는 식욕이 없는 사람의 입맛을 돋우고 방광에 있는 수기를 내려 배뇨를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민어의 부레로 만든 약효는 허약과 피로를 치유하고 몸을 보호한다고 적고 있다.

소라는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타우린 성분이 많아 쌓인 피로를 푸는데 좋으며 DHA가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의 두뇌발달에 좋고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해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7월 이달의 수산물은 부안상설시장, 곰소수산물판매센터, 격포항수산물센터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신선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한편 부안군은 지역특산물 및 제철 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통한 어민들의 소득 향상 등을 위해 2016년부터 매월 이달의 수산물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농기센터, 농가어로 해결 나서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는 관내 마을별 영농현장을 찾아 농가들의 당면한 영농상 궁극증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추진하고 있는 '여름철 당면영농 현장교육'에 많은 농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현장중심의 애로기술 해결중심교육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100여개 마을 1,500여명을 대상으로 읍면동별 거점마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그동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당면한 영농상의 문제점과 애로 기술 등을 해결해 주고 특히 상호 토론식 교육을 통한 영농상담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부분의 영농교육이 농업인들이 교육장으로 찾아오는 형태로 진행되는 반면 여름철 영농현장 교육은 30여명의 전 농촌지도사가 마을에 직접 찾아가 농업인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마을의 모정이나 회관 등에서 당면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황산면 시민로스쿨 '성료'

김제시 황산면 (면장 이하영)에서는 지난달 29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주최하는 '2016년 시민로스쿨'생활법을 세 번째 강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김용호 변호사가 '부부간 법률분쟁 현명히 해결하기(혼인과 이혼)'를 주제로 혼인으로 부부간 재산에 관한 법률문제 및 이혼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등에 관한 사례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시민로스쿨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률지식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흔히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에서 적절한 대처법을 설명하는 과정으로, 역olum하게 피해를 입는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이하영 황산면장은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으나 최근 부부간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다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법률적 관점에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의 강연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내장산국립공원 내 우화정(羽化亭)은 호수 속 자연석 석축 위에 화강석 기단을 갖춘 24.44㎡ 규모의 팔각정 형태이다.

내장산 우화정 한옥으로 새 단장

<羽化亭>

주변과 조화이룬 자연석 석축·팔각지붕 건축미 돋보여

내장산국립공원 내 우화정(羽化亭)이 전통한옥으로 새롭게 탈바꿈됐다.

시는 도비와 시비, 자부담(내장산) 모두 4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12월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온 우화정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30일 현장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새로운 모습으로 자태를 드러낸 우화정은 한식 목조 팔각지붕 형태로 전통 한옥의 멋스러움이 돋보인다. 호수 속 자연석 석축 위에 화강석 기단을 갖춘 24.44㎡ 규모의 팔각정 형태이다. 통로는 기존의 방식 그대로 자연석을 이용한 징검다리로 만들어졌다. 전체적으로 우화정

을 감싸고 있는 호수, 내장산의 수려한 산세와 어우러진 모습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다는 평이다.

정자에 날개가 돋아 승천했다는 전설을 품고 있는 우화정은 내장산 중심부 호수에 자리, 예부터 내장산의 아름다움을 잘 카메라에 잘 담을 수 있는 사진 찍기 명소로 인기가 높았다. 특히 겨울같이 맑은 호수에 붉게 물든 단풍이 비치는 정경은 '산홍(山紅), 수홍(水紅), 인홍(人紅)'으로 대변되는 내장산 단풍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절경 중의 절경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1965년 건립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50여년의 세월이 지나

면서 낡고 노후화돼 안전성이 우려되는 데다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와 내장산은 기존 우화정을 철거하고 사계절 아름다운 내장산의 자연경관에 걸맞은 전통한옥으로의 개축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9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9개월여 만에 준공했다. 김생기시장은 "오랜 세월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받아온 우화정이 철거돼 아쉽지만 새롭게 건립된 전통한옥 우화정이 국립공원 내장산의 랜드마크이자 전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새로운 명소가 자리매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음=김대환 기자

김종규 부안군수, 중앙부처 등 찾아 예산확보 총력

김종규 부안군수는 민선6기 전반기가 끝나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김종규 군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를 방문해 부안읍 하류에서 새만금 게이트에 이르는 직소천 수자원 개발을 위한 '에코테인먼트 거점 조성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를 방문해 부안을 유역전체에 대한 종합재해 예방사업인 '부안읍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해당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김종규 군수는 또 해양수산부를 방문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러한 김종규 군수의 '발품행정'이 빛을 발해 부안군은 2016년 상반기에만 36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



김종규 부안군수는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를 잇따라 방문했다

고 국비 425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종규 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중앙부처에서도 깜짝

놀랄만한 신규 시책을 개발하고 나아가 국가적 사업으로 만들어 가려는 '발품행정', '세일즈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노인일자리아사업 평가 '우수' 선정

김제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한 '2015년 노인일자리아사업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김제시 백산면 소재 김제노인복지센터(센터장 박경란)는 노노케어, 그룹홈 돌봄사업, 지역아동센터 연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최우수 수행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김제시는 지난해 노인일자리아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31억1,500만원을 투입해 19개 읍면동을 비롯한 김제시니어클럽 등 9개 수행기관에서 거리환경개선사업, 노노케어, 한울타리 독거노인 돌봄사업 등 1,600여명이 참여해 당초 계획 대비 100% 추진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와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타당성, 참여

자 모집·선발의 적정성, 목표달성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의지 등 9개 항목 27개 지표를 기준으로 수행기관별 자율평가, 시군구 교차 현장평가, 중앙 평가단의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심사에 이르는 절차로 이뤄졌다.

시장은 보건복지부 주최로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노인일자리아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 시도, 지자체와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표창이 수여됐다.

김제시 관계자는 2016년 노인일자리아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37억 예산으로 1,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수상은 계기로 더욱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 참여 대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음보건소 질병정보모니터교육

정음시보건소는 오는 5일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질병정보모니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정보모니터는 각종 전염병의 연도별·지역별·계절별 발생양상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분석하여 시민 또는 보건기관 등에 예방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병·의원을 비롯한 학교보건 교사, 산업체집단급식소 보건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한다.

원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오경재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오교수는 이날 질병정보모니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정음=김대환 기자

김제시, 축제해설·통역안내 봉사자 모집

김제시(시장 이건식)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되는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 기간에 운영하는 축제전문해설사와 통역안내 자원봉사자 모집에 나선다.

축제에 대한 설명과 축제장 안내 등을 통해 축제 이해도 및 만족도를 제고할 축제전문해설사와 통역안내 자원봉사자는 만18세 이상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축제전문해설사는 축제·관광 등 분야 전공자 및 자원봉사경험자를 우대하고 통역안내 자원봉사자는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김제시 및 지평선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

메일(smgo123@korea.kr)로 접수절차를 거쳐, 7월 말에 심사를 통하여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지평선축제의 행사장인 벽골제를 중심으로 축제기간 전 8~9월경에 서면교육 및 현장탐방과 실무교육, 관광객 환대서비스 마인드 함양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축제전문해설사와 통역안내 봉사자에게 철저한 사전교육으로 차별화된 축제로서의 가치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흥미롭고 특색있는 성공스토리를 전달해 '세계 속의 지평선축제, 세계로 향하는 지평선축제'라는 글로벌축제 도약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축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내년 1월 정식개관 할 전북기상과학관은 천문멀티플렉스실과 날씨 체험장, 전체 관측실 등 천문과 기상을 체험하고 관측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

국립전북기상과학관 현판식

정음 상평동 현지에서

정음시와 기상청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상평동 생활체육공원 인근에 건립한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이하 전북기상과학관)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에는 김생기시장과 교문화 기상청장을 비롯한 기상청 임직원과 우천규 시의회위원장, 장성열 정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지역 단체장들과 지역 주민들 100여명이 참석했다. 내년 1월 정식개관 할 전북기상과학관은 천문멀티플렉스실과 날씨 체험장, 세계 기후와 날씨 예보실, 전체 관측실 등 천문과 기상을 체험하고 관측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시와 전북기상과학관은 정식 개관에 앞서 7월부터 정음시민과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예약제 관람을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관계자들은 "전국기상과학관이 본격 운영되면 기상과학 지역교육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됨은 물론 질 높은 기상과 콘텐트를 제공, 관광객들을 다채롭고 흥미로운 기상과학의 세계로 이끄는 핵심거점 공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특히 전국에서 연간 2~3만명이 체험방문차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들 방문객들을 지역관광과 연계, 관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생기 시장과 교문화 기상청장은 천문관측체험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짐을 감안, 타시도 청소년들이 방문할 경우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상인 체험교육관(숙박·교육) 건립사업을 2017년 신규사업으로 건립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주부, 농업인 등 일반시민들이 김제시청 1일 명예실과장으로 위촉되어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제시, '시민 1일 명예실과장제' 큰 호응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지난달 30일 읍면동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1일 명예 실과장제"를 운영했다. 이번 명예 실과장제는 주부, 농업인 등 일반시민들이 김제시청 1일 명예실과장으로 위촉되어 김제시 28개 각 실과를 체험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명예 실과장 28명은 시 주요현안 사업인 새만금 2호 방조제 현장을 방문하여 작년 10월 26일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방조제를 둘러보고 새만금국책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2호 방조제 관할권 확보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새만금 사업, 지평선산단, 민간육종연구단지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김제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김제시 관계자는 "앞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일 명예실과장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명예실과장들의 행정 개선사항이나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 애로사항 등 문제점은 시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행정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